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11.14)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 구분 | 내용 | 비고 |
|----------|-------------------------------|--------------|
| 은행간 환율 | 111.00 Tk/USD (전주대비 0.00△) | '23.11.14 기준 |
| 기준금리 | 4% 유지 | '23.10월 기준 |
| 월평균 시중금리 | 7.35% (전월대비 0.94△) | '23.10월 기준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1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23.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 Period | Change | Min | Range | Max |
|----------|----------|-------------------------|--|-------------------------|
| 1 Week | 0.0 bp | 8.505 % Nov 7, 2023 | No change | 8.505 % Nov 14, 2023 |
| 1 Month | 0.0 bp | 8.505 % Oct 14, 2023 | No change | 8.505 % Nov 14, 2023 |
| 6 Months | 0.0 bp | 8.505 % May 14, 2023 | No change | 8.505 % Nov 14, 2023 |
| 1 Year | +23.5 bp | 8.210 % Nov 21, 2022 |  | 8.510 % Jan 14, 2023 |

Current Yield: 8.505%
Last update: 14 Nov 2023 0:15 GMT+0

□ 인플레이션, 10월에 9.93% 증가

- 식품과 비식품 물가상승률이 모두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2023년 9월 9.63%에서 10월에는 9.93%로 상승.
- 방글라데시 통계국(BBS) 자료에 따르면 식품 물가 상승률은 9월 12.37%에서 2023년 10월 12.56%로 상승. 비식품 물가 상승률은 9월 7.82%에서 10월 8.30%로 상승.

- 2022년 11월~2023년 10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9.37%를 기록. 10월 임금률 지수는 9월 7.64%에서 7.69%로 상승세.

□ 정기적인 ACU 지불 후 외환보유액은 19.29B 달러로 감소할 것

-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forex)은 2023년 11월 6일 아시아청산연합(ACU)에 2개월분(9~10월) 1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수입어음을 결제함에 따라 192억 9천만 달러 보유.
- 송금 유입액은 2023-24 회계연도의 첫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월에는 41개월 만에 최저치인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 외국인은 지난 7월 19억 7천만 달러, 8월 16억 달러를 송금, 10월 1~27일 송금액은 16억 4천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을 시사.
- 2023년 9월 국가 전체 신용장(LC) 개설은 달러 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9월 4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 방글라데시와 대한민국 양국간 무역관계 강화 MOU 체결

- 한국수입협회(KOIMA)와 방글라데시상공회의소연합회(FBCI)는 2023년 11월 6일 "양국간 무역관계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양국 교역량은 30억3500만 달러로 지난해(21억 8,800만 달러)보다 38.71% 증가.
-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타판 칸티 고쉬 상무부 수석비서관은 "양국간 교역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번 KOIMA-FBCI MOU 체결은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
- 한국은 현재 방글라데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5위 기여국으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는 자동차, 휴대폰, 전자 등의 제조업 확대임.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강력한 입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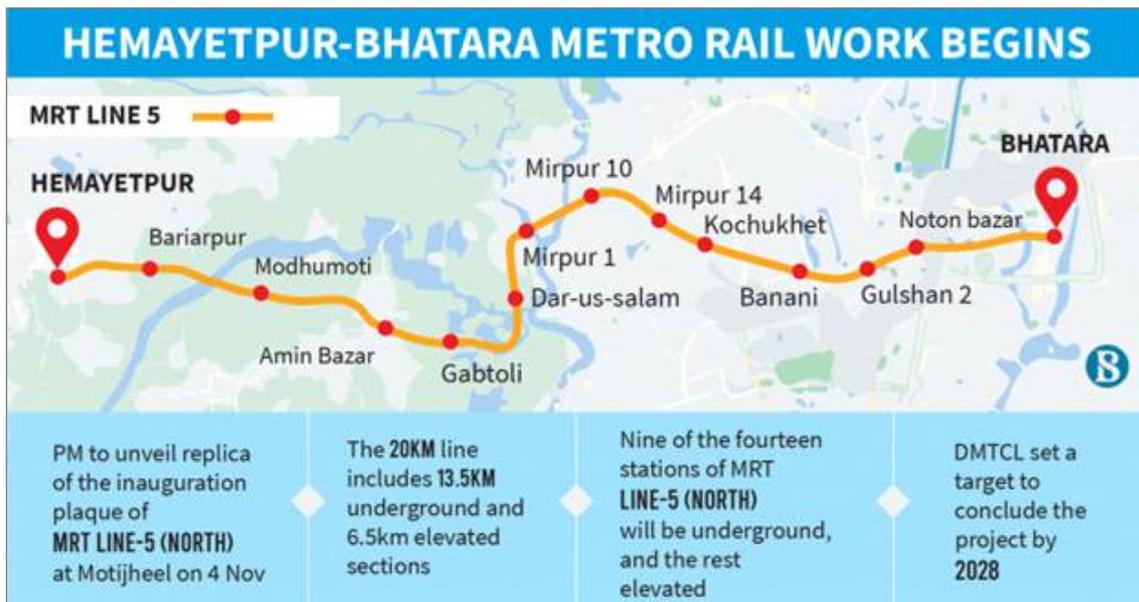
구축하며 국내 제조업을 통해 양질의 고용 기회를 창출.

□ PM, 11월 11일 마타바리 심해항 착공

- 마라바리항은 26년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11월 11일 콕스 바자의 모하쉬칼리에서 마타바리 심해항 착공예정.
- 길이 460m의 컨테이너 부두와 300m의 다목적 부두, 컨테이너 야드 등 각종 항만 시설이 건설되며, 이를 통해 8,000~1만 척의 컨테이너선이 직접 부두에 입항할 수 있게 됨.
- 방글라데시 최초이자 유일한 원양항 건설을 목표로 한 마타바리항 개발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다카 약 1만 7,777크로어를 들여 진행.

□ 헤마예트푸르-바타라 구간, 아가가온-모티힐 노선 개통에 맞춰 착공

- 헤마예트푸르에서 다카의 바타라에 이르는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는 11월 4일에 6호선 아가가온-모티힐 구간이 개통되면서 시작.



- 1,189크로어 규모의 계약에 따라 일본 TAO사와 방글라데시 Spectra Engineers Limited의 합작회사는 취임식 이후 99.25에이커의 부지를 개발하기 시작할 것.

- 이 사업은 지하 13.5km, 고가 6.5km의 20km 노선 건설, 2019년에 Tk 41,238.55크로어의 예상 비용으로 승인. 14개 역 중 9개 역은 지하 구간, 나머지 역은 고가 구간에 신설될 예정.
- DMTCL은 2028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한다는 목표. 일 기준 123만의 승객 예상.

□ 해외 계약 업체가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 외국계 건설사들은 대금 연체, 부지 인도 지연, 선금금 대비 은행 보증 미제공 등을 이유로 전력·철도 분야 인프라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 룩푸르 원자력 발전소 송전선로 개발

- Roopur 송전선로 공사에 참여한 러시아 기업은 국제적 제한으로 인해 대금 결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통신 중단, 선수금에 대한 은행 보증 제공 실패, 보험금 수령 지연, 신용장을 통한 어음 수령에 대한 국제적 제한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부실채권으로 인해 2022년 12월 파산을 선언.

□ 다카-나라양간지 철도 노선 건설

- 2017년 6월 BR은 중국전력공사와 Dual-gauge Daka-Narayanganj 철도 노선 건설 패키지 1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중국 전력공사는 2023년 3월 15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 나라양간지 도시 공사 지역의 일부 내에서 상당한 공간적 제약에 직면(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고 건설업자에게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2022년에 만료된 상황임.

□ 첫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예정

- 정부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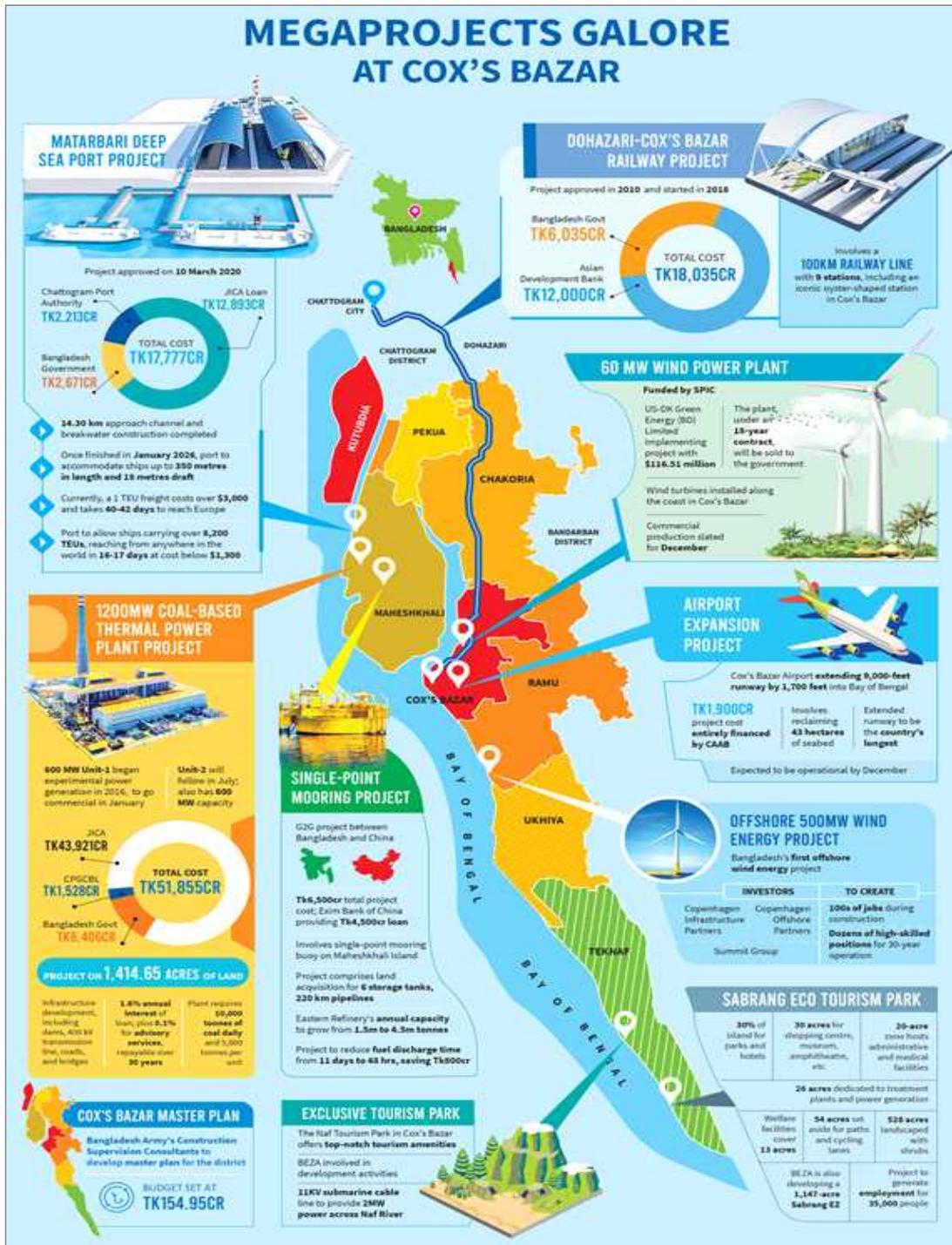
타당성 조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 덴마크의 CIP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와 COP (Copenhagen Offshore Partners)는 씨밋 그룹과 연계하여 7월에 13억 달러의 투자 제안을 했으며, 전력청은 10월 말 투자 승인을 한 바 있음.
- 록스 바자르 해안에 위치한 500메가와트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가 완료 되면 육상 변전소를 통해 국가 전력망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게 됨.

□ RMG 소유주들이 미르사라이 경제권 건설을 꺼리는 이유

- 방글라데시 경제구역청(BEZA)과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업자·수출자협회(BGMEA)가 2018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BSMSN내 500에이커 규모의 의류단지에서 239에이커를 임대(의류공장은 41곳에 불과).
- 임차인 중 일부는 진입로와 같은 필수 기반시설의 건설과 투자를 위한 필수 유틸리티의 보장이 저조한 이유로 임대 계약을 취소.
-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자협회(BGMEA)의 샤히둘라 아짐 부회장은 "지금까지 시설제공이 미비하다. 공장 부지는 여전히 도로 밑 약 6피트 아래에 있다. 가스나 전기도 없다.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 아직 타운십이 조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
-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정치·노동 불안이 재연되면서 의류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권 내 의류 공장 설립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

□ 록스 바자의 메가 프로젝트 개발 마스터플랜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방글라데시 야당 시위관련, 교도소 공간 부족

-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주 동안에만 거의 1만명에 가까운 야당 지도자와 지지자, 활동가들이 체포.

- 수천 명의 다른 정치범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라즈샤히 중앙 교도소는 약 4,000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13,600명 이상을 수용.
- 하시나 후보와 아와미리그당이 4연임(1월 선거)을 노리는 가운데 당국은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국민당(BNP)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 집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는 BNP 지도자 수백 명이 구금되기도 했으며, 집회 당일 지지자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서면서 하시나 아와미 연맹 소속 활동가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막대기, 쇠파대기, 칼 등으로 무장한 채 집회를 공격하는 모습이 목격. 이번 폭력사태로 BNP 활동가와 경찰, 언론인 등 최소 3명이 사망.
- 알리 리아즈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폭력 사태를 촉발한 경찰의 대응은 집회를 훨씬 앞두고 계획된 것으로 보였다"며 "활동가들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경찰의 행동이 생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됐다"고 밝힘.
- BNP 사무소에 따르면 2009년 이래로 13만 8천 건 이상의 소송이 BNP와 그 회원 단체의 지도자, 활동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제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곧 선거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카지 하비블 아왈 선거관리위원장은 11월 2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선거일정 발표 예정이며,
- BNP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10월 28일 폭력 사태 이후의 탄압 속에 수감되었으나, BNP 지도자들은 선거 일정이 발표되면 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